

# CATHOLIC KYOTO DIOCESE

Catholic Chancery Office  
Kawaramachi Sanjo Agaru  
Nakagyo-ku, KYOTO,  
604-8006 JAPAN  
TEL: +81-75-211-3025  
FAX: +81-75-211-3041

カトリック京都司教区  
〒604-8006  
京都市中京区河原町三条上ル  
TEL:(075)211-3025  
FAX:(075)211-3041  
e-mail:curia@kyoto.catholic.jp

Kyo. Prot. N. 44/2020

2020年4月17日

## 교토교구의 신자여러분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요시나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미사등의 중지조치 및 이후의 조치(4 번째) 4월 20일 이후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4월 17일「긴급사태선언」의 발표를 받아들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감염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4월 20일(월요일)이후의 대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주일미사의 참가의무의 면제

4월 20일(월요일)이후 역시, 당분간, 교토교구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일미사의 참가의무를 면제합니다.

#### 2. 미사등 중지의 계속

4월 20일(월요일)이후 역시, 당분간, 불특정다수가 참가하는 공개미사, 집회, 강좌를 원칙적으로 중지합니다. 미사의 경우, 동경교구의 라이브등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https://tokyo.catholic.jp/>

#### 3. 장례, 결혼식

장례는 담당사제·관계자와 충분히감염예방방지대책에 대하여 상담후 20명이내의 소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①상시환기를 하고, ②회중의 간격을 2미터정도 가지고, ③비말감염을 방지하기위해 근거리에서의 성가, 대화를 하지않는것에 주의하시며, 장례만 거행합니다.(오츠야는 거행하지않습니다.)

당분간은、「말씀의 전례」의 형식으로 거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 대해서도, 20 명 이내의소규모로 거행하지만, 지장이 없다면 연기해주시기바랍니다.

#### 4. 성당의 개방에 대하여

교토교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당을 개방하는 것을 자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성당을 개방하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문손잡이, 탁자, 의자등을 매일 몇번이고 소독할 필요가 있고, 그 작업을 사제와 신자들이 와서 할 때에 감염의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 5.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 1)일본전부의「긴급사태선언」이 해소된 후의 감염상황을 보고, 조치의 내용이 바뀔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2)미사등 집회의재개를 할 경우의 판단기준은, 각블럭이 속해있는 지역(현 또는 시, 동네), 또한 인접해있는 지역에 대해서, 과거 2 주간 감염자가 확인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염자수가 계속해서 확인되는 지역의 블럭에서는 미사(말씀의 전례) · 집회 · 강좌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토교구가 성당에서 미사등 집회를 자숙하는 목적은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의식하지못하는 사이 감염원이 되고, 다른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기도를 바칩시다.

지금, 교회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신앙을 새롭게하는 부활을 지내고 있습니다.어떠한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이미 부활하여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의 신뢰안에서 하루빨리 감염병이 수습되고, 전세계에 평온한 하루가 주어지기를 다함께 기도합시다.